

구동에서



김종민
논설실장

국정감사는 국가 기관의 담당 업무가 헌법과 법률에 맞게 집행되고 효율적으로 수행했는지 전반에 대해 살피는 것으로 정기국회에서 실시한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행정 감사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과연 그럴까.

제22대 국회 첫 국감은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를 시작으로 광주시와 전남도, 지방 법원, 경찰청, 국제청 등으로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 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과 공공기관 대상 감사에서는 체고 원전 수주를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 지원 여부를 추궁하며 "윤석열 정권이 '대박'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부분 근거 없는 악의적인 주장으로 '이적행위'라고 맞받았다.

법제사법위의 광주고법·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김건희 여사 관련도 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관련해 따져냈다. 바주기식 수사라는 야당의 비난에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으로 응수했다.

행정부, 주요 기관에 대한 현안은 모르쇠로 김 여사 의혹과 이 대표 사법 리스크 공방이 부각됐다. 특히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22대 국회 첫 국감도 역시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살라미(잘게 쪼개서 하나씩)' 폭로를 이어가며 그 진위를 놓고 난타전으로 흘렀다. 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13개로 확대한 특검법을 세번째로 발의하며 파상공세에 나서 여의도는 시계제로 빠져들고 있다.

또 있다.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나가 참고인으로 출석한 환경노동위에서는 다소 민감한 풍경이 연출됐다. 인증샷을 찍는가 하면 별도로 만나고 왔다는 특혜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의원들은 '하느님'이라는 등의 호칭으로 부르는가 하면, '역사의 한순간'이라며 스스럼없이 발언하고, 자신의 노트북에 '버니즈(팬덤명)' 스티커를 붙여놓기도 했다.

중인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베트남계 호주 국적자인 하나의 눈물 섞인 호소를 제대로 들었는지 의문이다. 심증팔구 불거리 이벤트 정도로 삼았을 터였다. 피감기관의 수장을 불러다 나무라고, 호통치고, 면박주는 행태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감 한복판에서 치러진 10·16 재·보선은 민심의 현주소를 잘 보여줬다. 정당 대표들이 총출동, 격전이 엿새됐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자의 텃밭에서 무난하게 승리해 승거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옷치 못했다. 호남에서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추격을 허용하면서 일당 독점 지형의 균열이 확인됐고, 영남에서 여권발 위기와 야권 단일화에도 무기력해 전국 정당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비호감이긴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마찬가지다. 양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30%대 답보 상태로 고착돼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반증한다.

매번 국정감사는 '팽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곤 했다. 이른바 '결정적 한방'이 보이지 않는다. 올해도 상대와의 대결이 아젠다가 됐다. 막장 정치에 발목이 잡혔다. 후시나 했는데 역시나.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광주시, 전남도 국감도 하나마나한 형식적 질문만 나왔다. 공동의 관심사는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였으며, 지자체의 신뢰와 대화 부족만 집중 거론됐을 뿐이다. 광주는 행정통합 담론부터 광주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보터스(GGM), 5·18 헌법 전문 수록, 정율성역사공원 추진, 전남은 기본소득 도입, 한전공대 지원,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책, 한빛 원전 수명 연장 등을 다뤘어도 진전된 내용은 없었다.

국회 상임위원회마다 진흙탕 싸움만 무한 반복이다. 금도를 넘었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약속은 공염불이다. 무능하고 무지하다. 국정감사는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 22대 국회에서는 다름이 없었다. 실낱같은 기대, 괜한 짓거리였다.

이분법 양극화 정치가 파생한 참으로 망측한 일도 있다. 대한민국 1호 노벨문학상 '한강의 기적'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장본인이다.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제주4·3의 진실을 때 아닌 이데올로기로 부정한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는 평가를 '선봉기 앞에서 원고를 날려 정했'하며 비아냥댄다.

국민들은 길을 잃었다. 상생의 정치 문화를 만들기 가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아닌 것 같다. 지금으로선 엄하고설친 고차 방정식이다. 거대 블랙홀에 갇혔다. 불가항력치 모른다.

社說

한전 전기요금 인상 경제계 우려에도 귀 기울이길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막대한 적자 해소를 위한 재정 건전화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막대한 영업 손실로 이자도 감당 못하는 한계기업이면서도 임직원들은 고액 연봉과 함께 매년 주택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실행하고 대학원 교육비까지 지원받는 등 방만한 경영 실태가 지적되기도 했다.

최대 에너지 공기업 한전이 산업용을 평균 9.7% 인상하는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물가, 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주택·일반용은 동결했다. 산업용 고객은 2023년 기준 44만호에 해당되며, 전체(2천512만9천호)의 1.7% 정도지만 전력 사용량은 53.2%를 차지한다. 한전은 경기 침체에 따른 어려움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kW 미만은 5.2%로 결정했다. 300kW 이상은 4만1천호로 전체의 0.1% 수준이나 사용량은 48.1%를 점유하는 실정이다.

관련 업계는 추가 수익을 연간 4조7천억원 규모로 전망한다. 전체 요금을 5% 가량 올리는 효

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대기업에 주로 해당하는 산업용 위주로 올리기로 한 것은 내수 침체 장기화 속에서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제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세계적인 불확실성 확대 등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에서 기업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내고 뿌리 업체들은 전기요금이 제조원가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며 사실상 재고를 요청했다. 재정 여건이 한계치에 다다른 상태에서 부채 완화를 위한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기업 활동의 심각한 위축 가능성이 제기되는 현실이다.

단계적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한전이 국민 불만을 해소할 방안도 마련하길 바란다. 약속한 자구노력을 철저히 이행해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전력망 건설에 매진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한전은 의지를 밝혔다. 기대에 못 미친다는 내부 개혁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로도 삼았으면 한다.

올해 대박 난 광주김치축제 무한 변신 이어가야

31회째를 맞은 '광주김치축제'가 흥행에 성공했다. 단연 최고 콘텐츠는 '스타셰프 푸드쇼'로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최현석, 여경래, 파브리치오 페라리 셰프와 사찰음식 명장 정관스님이 참여해 갖가지 간장게장 리조토, 대하김치 통새우 고기찜, 맨드라미 백김치 묵밥, 갯물 김치 문어 냉파스타를 직접 만들었다. 100명의 관광객은 김치를 재해석한 혁신적인 요리를 그 자리에서 시식하며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천인의 밥상'도 여전히 인기였다. 향아리 통삼겹 바비큐, 김치치즈 삼겹말이, 당근김치 타코, 보리얼무 육회 비빔밥, 묵은지 잡채, 김치말이 국수, 김치전 등 30여 종류를 선보여 방문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광주시청 광장 일원에서 사흘동안 열린 축제에 6만8천여명이 다녀갔다. 매출액은 8억2천만 원을 기록했다. 김치마켓은 절반 정도인 4억100만 원에 달했다. 최근 산지 배추값 상승으로 김치가 가격에 대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중보다 20~30% 싸게 1kg에 8천원부터 판매, 저렴하고

품질 좋다는 평가에 문전성시를 이뤘다. 김치 요리 매출은 1억9천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맛깔스러운 김치와 감동 있는 이벤트가 버무려진 풍성한 행사였다. 광주김치는 하나의 장르로, 광주의 대표 브랜드임을 재차 증명했다. 프랑스·영국·미국·일본·헝가리·베트남·캐나다 등 15개국 이상 외국인이 대거 방문, 가슴깊이 남을 추억을 만끽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즐기는 글로벌 축제로 진화하고 있다.

기존의 김치 담그기 체험과 견영대회, 판매 위주에서 벗어나면서 대박이 났다. 그렇다고 안주해선 안 된다. 내년에도 트렌드를 이끄는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더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 김치는 K-콘텐츠의 핵심이고 광주가 중심에 서 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 광주시민의 소울푸드가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K-푸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주 최광(光) 김치파티'는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앞으로도 무한 변신이 이어가야 할 것이다.

문화난장



김영순
광주문화재단 전문위원

기차는 달리고 있었다. 멈출 수 없는 속도로, 목적지 없는 궤도를 따라 끊임없이 질주했다. 나는 그 안에서 수십 년을 보냈다. 그 속도와 압박 속에서 내가 어디로 향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저 더 나은 삶과 더 높은 위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브레이크 없이 달려온 인생, 마치 그리스 신화 속 시시포스가 산을 오르내리며 바위를 밀어 올리는 것과 같았다. 끝도 없이 반복되는 일과 목표들 속에서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지만, 그 의미는 늘 정상에 다다르기 직전에 다시 굴러 내려가 버렸다.

시시포스의 신화는 나와 같은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울림을 준다. 시시포스는 신들의 발을 받아 거대한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 올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았다. 그러나 바위는 정상에 도달하자마자 다시 굴러 내려갔고, 그는 다시 그 바위를 밀어야 했다. 이 고통스러운 반복의 과정은 허무하고 부당해 보인다. 마치 내가 그동안 멈추지 않고 달려왔던 삶과 흡사하다. 계속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왔지만, 정작 그것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는 알 수 없었다. 때론 정상에 거의 다다랐다고 생각했지만, 그 끝은 또 다른 시작일 뿐이었다.

'휴식' 그리고 새 출발

그러나 알베르 카뮈는 그의 철학적 수필 '시시포스의 신화'에서 시시포스를 '행복한 인간'으로 해석했다. 카뮈에 따르면, 시시포스는 자신의 형벌이 부조리하고 끝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반복적인 과정에서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 바위가 굴러 내려가는 그 찰나의 순간, 시시포스는 자신이 그 바위를 다시 밀어 올려야 한다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선택의 자유를 느낀다. 그는 고통스러운 형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운명에 반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부조리한 상황을 자신만의 의미로 채워간다.

나 또한 시시포스처럼 느껴졌다. 수십 년 동안 끝없이 달려온 일과 성취를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 목적지에 도달할 때마다 다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만 했다. 멈출 수 없었고,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마치 시시포스가 그 바위를 다시 밀어 올릴 때 느꼈던 것처럼, 나의 삶을 다시 바라보고 의미를 찾는 순간이 온 것 같다. 내가 왜 달려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달려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이 깊어지고 있다.

영화 '설국열차'의 마지막 장면처럼, 기차에서 내려 새로운 세상을 마주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주인공이 기차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눈 앞에 펼쳐진 거대한 자연 앞에서 공포와 혼란에 빠진다. 익숙한 기차 안의 삶을 떠나,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을 맞이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이는 일이다. 두려움은 당연하다. 나 역시 내가 익숙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것이 두렵다. 내가 살

아운 방식에서 벗어나면, 과연 그다음은 무엇일까? 나의 삶은 다시 바위를 밀어야 하는 시시포스의 운명처럼 무의미한 반복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지만 시시포스가 부조리 속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갔듯이, 나 또한 이제는 두려움 속에서 나의 삶을 재정의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기차에서 내리는 것은 익숙함에서 벗어나 미지의 세상에 발을 들이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자연스럽지만, 그것을 기회로 바꾸는 것은 내 선택이다. 두려움 속에서 내가 나아가길 길을 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시시포스가 매번 바위를 밀어 올리는 행위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수용한 것처럼, 나 또한 나의 길을 만들어 갈 것이다.

설국열차에서 내려 세상과 마주한 주인공이 그곳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했듯, 나도 이제 그 기차에서 내려 나 자신만의 속도로, 나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 기차의 속도에 휘둘러 달려온 지난날들과 달리, 이제는 멈추고 내가 진정 원하는 방향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길 준비가 되어 있다. 거기서 느끼는 두려움조차도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신호일 뿐이다.

시시포스가 영원히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도 자기 운명을 긍정하고 자기 삶을 만들어 갔듯, 나 역시 그동안의 삶을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더 큰 자유를 찾아 나아가길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가 아닌, 나만의 걸음으로, 내 속도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때가 되었다.

독자투고

AI 기술의 발전은 사회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디지털 범죄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와 사이버 범죄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AI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은 점점 더 자동화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탈취나 금융 사기, 국가 인프라 공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디지털 범죄와 AI 악용, 대응과 예방의 중요성

러한 범죄에 대응하려면 사이버 보안 인프라를 강화하고, AI 기반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빠르게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디지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AI와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양성민·보성경찰서 경무과)

대중에게 범죄예방 교육을 강화해 딥페이크나 AI 기반 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해야 한다. 전 사회적인 문제다. 기술적 대응과 함께 대중의 인식 제고를 통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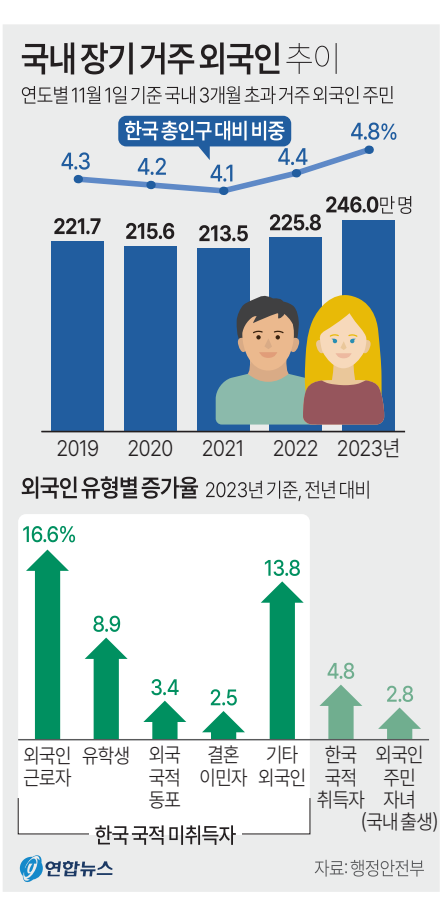
그래픽 뉴스

지난해 국내 장기거주 외국인주민 246만명...역대 최대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가 역대 최대인 약 246만명을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24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는 245만 9천 54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 기록이다. 외국인 주민 수는 지난해 분석 때 2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역대 기록을 경신했다. 외국인 주민 수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인구(5천177만4천521명)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17개 시도 인구 규모 순위와 비교하면 6위인 경북(258만9천800명)과 7위인 대구(237만9천188명) 사이에 해당한다.

시도별로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주민 수가 지난해 통계 대비 7% 이상 증가했다. 증가율은 전남(18.5%), 경남(17.0%), 울산(15.6%) 등 비수도권의 증가 폭이 컸다.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도는 경기(80만 9천801명), 서울(44만 9천14명), 인천(16만 889명) 순이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국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제)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